



국내 도로 사이클 동호인들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 '투르 드 코리아 2019 스페셜대회'가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인제군과 강릉시, 삼척시에서 열린다. 6차례의 예선을 통과한 24개 팀 170여명의 선수가 출전해 자웅을 겨룬다. 투르 드 코리아 2017 스페셜에서 강릉 일대를 달리는 선수들. 사진제공 | 투르 드 코리아 조직위원회

인제-강릉-삼척 214km...강원 가을을 달린다

첫날 인제 39km·둘째날 강릉 75km 삼척 100km는 '해발 641m' 난코스 예선 1위 권대영·美 마퀴드 우승후보

투르 드 코리아 스페셜은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꿈의 레이스로 불린다. 국제사이클연맹(UCI) 규정에 따라 열리는 유일한 동호인 대회이기 때문이다. 2019 투르 드 코리아 스페셜이 오는 27일 개막해 사흘 동안 강원 인제군, 강릉시, 삼척시 등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열린다. 올해로 13번째 열리는 이번 대회는 27일 인제군에서 시작된다. 첫 날 인제군 일대 39km를 달리며 둘째 날은 강릉시로 이동해 75km레이스가 이어진다. 마지막 29일은 삼척시 100km 코스다. 스테이지 레이스 방식으로 치러지며 사흘 동안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가려진다. 이색 적인 코스도 눈에 띈다. 자동차 경기장인 인제 스피디움에 열리는 제1 스테이지는 자동차 경주용 써킷에서 진행된다. 삼척 코스에는 해발

641m 문의재 코스가 있어 지구력과 체력이 중요하다. 도로 사이클 대회는 일반 동호인들이 참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만큼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동호인들은 연초부터 치열한 경쟁을 이어왔다. 총 참가선수는 170명(24개 팀)이다. 6차례의 예선 기록을 합산해 개인종합 300위 이내 오른 선수에게만 참가자격이 주어졌다. 우승 후보는 6차례 예선에서 종합 1위로 본선 진출권을 획득한 권대영(탐스피드R)이다.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미국

인 대니얼 마퀴드(와츠레이싱팀)도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권대영이 소속된 탐스피드R은 단체전 정상을 노린다. 최고령 참가자는 만 55세인 김동환이다. 2007년 첫 대회 우승 경력을 갖고 있다. 전체 참가자 중 여성 선수는 2명이다. 예선을 165위로 통과한 김수정, 194위를 기록한 최소연이 그 주인공이다. 이번 대회는 전 경기가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또한 4명의 유명 유튜브버가 3일간 대회 이모저모를 영상으로 제작한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주최 : 동아일보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 2019 투르 드 코리아조직위 대한자전거연맹 SPO-EX-COM 스폰서 : SHIMANO GARMIN THULE

서승재-최솔규, 이용대조 꺾었다



최솔규(왼쪽)와 서승재

-최솔규(오른쪽)

2020도쿄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서틀록 기대주 서승재(원광대학교)가 25일 인천국제공항 스키아파트에서 열린 2019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복식 토너먼트 첫 경기 32강전에서 이용대(요넥스)-김기정(삼성전기) 조를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서승재-최솔규는 2-1(19-21 21-10 21-19)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서승재는 최솔규와 호흡을 맞추며 세계랭킹을 14위까지 끌어올려 국제무대에서 다크호스로 떠올랐고, 이용대-김기정은 올 해 많은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 세계랭킹이 24위지만 언제든지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정상급 선수들이라 이날 경기는 큰 관심을 모았지만 후반에 승리로 끝이 났다.

이경호 기자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9곳 선정 용인시청·보령시체육회 등 포함



스포츠 7330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사업대상자 9곳을 선정했다. 대상 단체는 용인시청, 장수군청, 영도구청, 서산시체육회, 보령시체육회, 당진시체육회, 건강한재단, 남서울대학교, 부산체육중·고등학교이다.

대한체육회는 6월에 공공스포츠클럽 사업대상자를 공모하여 대도시형 7개, 중소도시형 8개 등 총 15개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80%)와 발표평가(20%),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9개 단체를 선정했다. 선정 심사 기준은 스포츠 정책에 부합하는 공적인 역할 수행 가능 여부, 재정 자립 기반 구축 능력, 지역 주민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행 능력 등이다.

대도시형 공공스포츠클럽은 연간 3억 원씩, 중소도시형은 연간 2억 원씩 최대 3년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지역체육회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육성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연령, 계층의 지역 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 시설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곳까지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97개의 스포츠클럽이 운영될 예정이다. 2020년 신규 스포츠클럽 선정은 2019년 12월 중에 공모한다.

대한체육회는 공공스포츠클럽이 학교 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우수선수 양성, 은퇴 선수와 체육지도자 일자리 제공, 지자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KBL “비디오판독 최소화·플라핑 근절” 개그맨 이승윤, 9년 만에 로드FC 복귀전

새 시즌 앞두고 '경기규칙 설명회' NBA처럼 플라핑 영상 공개도 검토
홍기환 부장 “시간 지연 최소화 노력”

KBL은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KBL 사옥에서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2019~2020 시즌 경기규칙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제농구연맹(FIBA) 경기 규칙이 크게 변경되지 않아 KBL은 지난 시즌과 동일한 기준으로 경기를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한 규칙 적용과 함께 과장된 동작의 심판과 팬들의 눈을 속여 반칙을 유도하는 플라핑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확실한 규칙 적용

KBL 심판부를 관장하는 경기운영본부장은 이번 시즌 '포 더 팬(FOR THE FAN)'으로 표어를 정했다.

KBL 경기운영본부를 대표해 발표자로 나선 홍기환 부장은 “판정 가이드 라인은 심판들이 잘 지켜야 하는 게 우선이다. 선수들이 경기를 잘 할 수 있게 조력자 역할에 집중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이 큰 변화가 없다. 지난 시즌 파울 지적이 그 이전 시즌보다 평균 2개 정도 줄면서 경기의 흐름이 원활했다. 이번 시즌에도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농구가 가능하도록 선수, 벤치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1~3쿼터 비디오판독 최소화

경기운영본부는 이번 시즌 1~3쿼터에 비디오판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터치아웃 판독의 경우 경기장에 투입된 심판들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전혀 확인을 못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디오판독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판정에 실수가 나와도 감수한다는 입장이다. 비디오판독으로 지연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신 심판들의 집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디오판독 결과를 경기장 장내 아나운서뿐 아니라 중계진에도 별도로 설명한다.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2명의 심판이 설명하는 역할을 나눠 담당한다.

●플라핑 근절 강화

KBL은 지난 시즌부터 선수들의 플라핑을 별도로 집계했다. 경기 종료 후 경기운영본부가 별도의 영상 판독으로 플라핑을 지적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시즌부터는 플라핑 근절을 위한 별도의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심판과 관중의 눈을 속이는 행위를 자제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KBL은 각 구단에 이와 관련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매 라운드 끝난 뒤 플라핑 집계가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프로농구(NBA)처럼 플라핑으로 확인된 영상을 일반 팬들에게도 공개할지 등 구체적인 방법은 고민 중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내달 12일 종합격투기 대축제로 컴백
어린이들과 '20대1 이벤트' 게임 진행
유소년 승리맨 2000장 연탄 기부 예정



ROAD FC

2010년 로드 FC 제1회 대회에 출전했던 개그맨 이승윤(42)이 9년 만에 복귀전을 치른다. 세계종합격투기(WFSO) 대축제를 맞아 어린이 20명과 20대1로 맞붙는 이벤트 스타 경기에 등장한다.

이승윤의 이벤트 경기는 10월 12일 명지전문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5회 WFSO 대축제 및 제3회 로드FC 주짓수 대회에서 진행된다.

WFSO 대축제와 로드FC 주짓수 대회는 WFSO와 로드FC가 함께 종합격투기 대중화를 위해 개최하는 대회다. 종합격투기 대축제는 2016년에 시작해 이번 대회로 5회, 주짓수 대회는 2018년에 시작돼 3회째를 맞이했다. 첫 번째 주짓수 대회에서는 허경환이 출전하며 화제가 됐고, 2회 대회 때는 김보성과 꿈나무들의 10대 1 대결이 이벤트로 진행돼 꿈나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올해는 이승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승윤은 사회 환원을 위한 로드FC 사랑 나눔 프로젝트의 8번째 이벤트로 20명의 어린이들과 20대1 대결을 펼친다. 유소년이 승리할 시 2000장의 연탄을 기부할 예정



이승윤 이벤트 대전 포스터

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승윤은 25일 “격투기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대중들에게 불쌍사납지 않을까 잠시 머뭇거렸지만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WFSO 정문홍 회장은 “(이)승윤이 오는 1회 대회 때부터 서로 힘들 때 돕고 의지하고 살았다. 윤형민, 김보성 그리고 부대표님인 박상민 씨도 로드FC를 몸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종합격투기의 대중화와 로드FC의 봉사, 기부 행사에 항상 참여해주는 이분들에게 항상 감사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